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보도	'21.9.17일 조간	배포	'21.9.16일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책 임 자	금용위 글로벌금융과장 김 수 호(02-2100-2880)	담 당 자	조 형 주 사무관 (02-2100-2886)		
	금감원 국제국장 김 용 태(02-3145-7890)		정 관 성 팀장 (02-3145-7892)		

제 목 : 제10차 한·중·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개최

- 한·중·일 금융당국은 9.16일 '제10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'에 참석하여 3국간 금융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 교환 및 협력 방안 논의

1. 회의 개요

- '21.9.16(목) 한국의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중국의 은행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(CBIRC^①), 일본의 금융청(JFSA^②)과 함께

- * ①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
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

- '제10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'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.

- (韓)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, 금감원 김용태 국제국 국장
- (中) CBIRC ZHOU Liang (Vice Chairman)
- (日) JFSA AMAYA Tomoko (Vice Minister for International Affairs)

- 한·중·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'08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.

- 코로나19 영향으로 '20년 회의는 미개최하였으나, '21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.

- 동 회의는 금융당국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함으로써 3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고,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
2. 주요 논의 내용

-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, 금융위기 방지 등 각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- ① (中) 금융위기 예방 및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성과
 - ② (日) 2021~2022 JFSA 우선과제
 - ③ (韓)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안 (발표順)
- 아울러,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역내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.

3. 향후 계획

- 3국 순번제 개최에 따라 2022년 고위급회의는 한국 금융위·금감원 주관으로 개최되며, 구체적 시기 및 장소는 기관 간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